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1988년故김수환
추기경님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재단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VOL.218
2021

07



나눔으로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나눔가게 · 나눔기업' 함께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가게의 규모와 종류가 달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나눔가게, 나눔기업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변해갑니다.



- ♥ 매출 수익의 일정액을 매달 지속적으로 기부합니다.
- ♥ 손님이 저금통에 넣어주신 후원금을 전달해 사랑 나눔 고리를 이어주세요.
- ♥ 후원금은 후원자님의 지향에 따라 국내 환자 치료비 지원, 지구촌 빈곤 퇴치 지원, 자살 예방 지원, 국내 사회복지 활동 지원, 명동밥집 무료급식소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활동에 쓰입니다.
- ♥ 1년동안 꾸준히 나눔하고 나눔가게 현판을 받아보세요!

■ 참여 문의 _ 02 727 2299 / obos@obos.or.kr
■ 후원 계좌_우리은행 1005-701-16629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무통장 입금시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보스가 간다! 나눔가게를 찾아 오보스가 간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 소상공인 후원자분들께 위료가 되어 드리고, 응원해 드리기 위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신부님이 직접 나눔가게, 나눔기업에 찾아 갑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요청드립니다.



▶ 유튜브 채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종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보스가 간다 보기

인도 코로나19

긴급구호 특별모금

"우리는 지구촌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아쌈(Assam)주의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얼굴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인도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광부들의 생계가 하루 아침에 끊겼습니다.

주갈 우랑(Jugal Urang)씨는 하루 대부분을 어두운 갱도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14년 전 아내를 잃고 16살 난 딸을 여동생에게 맡긴 채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봉쇄령으로 일자리를 잃은 그의 절망은 더 큼니다. 수입이 끊기자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그는 친척집에 머물다가 갑자기 고열과 몸살 증세가 나타나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을 덮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마을 어느 곳에서도 거처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가 인적 드문 숲에서 홀로 누워있는 그를 인도 카리타스(Caritas India) 봉사자가 발견하였습니다. 구조된 그는 인도 카리타스의 센터로 옮겨져 긴급 식량을 제공받고 코로나19 치료 활동을 위해 의료시설에 인계되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잔인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구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카리타스(Caritas India)와 협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인도 전역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200개 마을을 중심으로 긴급 의약품 및 긴급 식량 배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0만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촌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긴급구호
계좌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85-119119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인도 코로나19 긴급구호 모금액 초과달성 시 '해외 긴급 구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74-3488)

‘슬픔 속 희망 찾기’

자살유가족을 위한 1박 2일 피정 안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남은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자살유가족 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자살유가족을 위한 1박2일 피정에서는

1. 조용히 스스로와 고인을 돌아보며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아픔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이웃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3. “죽음은 새로운 삶(생명)으로 초대”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고 희망을 꿈 꿀 수 있습니다.



일시: 2021년 10월8일(금) ~ 9일(토) (1박 2일)
대상: 사랑하는 이를 자살로 떠나 보낸 모든 분들
장소: 강화도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피정의집

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02-727-2495)

7월의 금(金)모닝, 한마음한몸 온라인 월레미사 및 특강

Fr. 김종호 야고보
(상도동 성당 부주임)



매월 월레미사 및 특강은 유튜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합니다.
 7월에는 상도동 성당 부주임 김종호 야고보 신부님이 '신앙의 눈으로 영화즐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시 : 7.30(금) 특강 10:30~11:30 / 미사 11:40~12:30



채널주소 : 유튜브 채널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